

삼성종합화학, EU 승인에 “얼떨떨”

EU 집행위, 삼성Atofina 합작 승인했지만 ... 삼성은 시큰둥한 반응

EU(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7월18일 삼성Atofina(가칭) 합작기업 설립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삼성종합화학은 승인여부에 대한 관심보다는 집행위원회 상정 자체에 문제점을 제기했다.

삼성종합화학은 EU의 승인문제를 놓고 EU가 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합작사 설립을 승인해주느니 마느니 운운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삼성종합화학은 관계자는 “국내 생산기업이 외국에 합작사 형식으로 투자를 할 때 국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독점금지 문제에 대한 승인을 국내에서 받지는 않으며, 따라서 아토피나 역시 유럽이 아닌 한국에서 합작사를 설립하기 때문에 EU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EU 집행위원회는 간이 독점금지 절차에 따라 삼성종합화학과 Atofina의 합작계약을 승인했으며, 제3자의 이의 신청이 없으면 1개월 안에 인수 합병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Atofina는 국내에서 2003년 7-8월 경 각각 9300억원 씩 동등지분으로 출자해 정식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김선환 기자>

<Chemical Journal 2003/07/23>